공포영화 '신데렐라' 봉 만 대 감독

"에로와 공포는 닮은꼴"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으로 충무로에 데뷔한 봉만대(36)감독에게는 '에로 영화 감독'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포 영화 '신데렐라'로 돌아왔다.

봉 감독은 "에로와 공포는 인간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라고 말한다. 광주 출신인 봉감독은 어머니와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에도 자주 방문 한다고. 주위의 오해(?)와 편견과 달리 건실하고 유쾌한 봉 감독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어떤 영화

단순 공포 아닌 멜로적 측면이 더 강해

-'괴물'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다. (전국 관객2위 데뷔) 소감이 어떤가?

▲'괴물'은 이야기와 영상이 잘 버무려진 대형 블록버스터인만큼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데렐라'와는 장르도, 이야기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분이 좋다.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순위를 다투고 있는 감독의 성씨가 둘 다 '봉'이다. 흔하지 않은 성 씨인데 '봉-봉시대'인듯 하다.

▲특별히 자주 만나거나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성 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웃음)

-영화'신데렐라'를 엄청 '센' 영화로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덜' 무서웠다는 반응이 많다.

▲일반적인 공포영화와 차별을 두고 싶었다. '신데렐라'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동화적인 요소도 그렇고 단순한 공포 영화보다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는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기른 정(情)과 낳은 정(情) 사이에서 엄마로서의 위치 등 생각할거리가 많은 영화다. 슬픔이 많이 모여서 한이 되고, 그 한이 모여서 공포가 된다고 생각한다.

-공포 영화를 좋아 하는가.

▲공포 장르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번 영화는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멜로적인 측면이 강한 영화다. 개인적으로도 지나치게 잔혹한 공포 영화는 만들고 싶지 않았다. 감독은 여러 장르를 섭렵하고, 그것을 통해 재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도지원, 신세경 등 좋은 배우들과 작업했다.

▲정말 멋진 배우들과 작업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봉만대 복만 들어오네.(웃음)

-광주 출신인데, 광주의 추억담은 없나.

향후 계획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찍고 싶어

'신데렐라'

▲독특한 이름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어릴 때는 항상 놀림만 받다가 고등학교 때는 맘좀 잡고 공부하려고 하니 고등학교(광덕고)가 '만대학원'이라는 이유로 이사장과 무슨 관계냐는 오해를 받았다. 사실 좋은 점도 있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처음에는 진짜 관계가 있는 줄 알고 잘 해주더라, 나중에는 무관심해 졌지만. 예대를 가겠다고 하는 친구 세 명과 '(인문계 수업엔 관심 없으니)수업료를 돌려주세요'라는 연극을 했다가 정학당할 뻔하기도 했다. 재미있고, 유쾌한 기억이 많다.

-자신의 영화를 어머니와 같이 본 적은 있는가. 장르가 장르다 보니 그 점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내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했다. 어머니도 나를 믿고 가장 많이 응원해 주셨고, '신데렐라'는 '피'가 나와서 아직 함께 보지 못했다.

-에로 영화를 만들면서 애로 사항은 없었나.

▲성(性)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힘들었다. 에로와 포르노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에로 영화의 편견을 뒤집는게 힘들었지만 '반항의 힘'으로 버텼다. 스토리와 배우의 연기를 갖춘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상당히 호남형인데, 연기를 할 계획은 없는가.

▲호남사람이니까 호남형이다.(웃음) 부가적인 재미를 위해 카메오 정도로 등장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연출자는 연출자의 자리에, 연기자는 연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멋진 일이다.

-차기작은 어떤 작품인가.

▲아직 계획은 없다. 광주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다. 내가 직접 겪었던 5·18을 다루고 싶다. 지금은 아니고 내가 거장이 되었을 때…. 우선 '신데렐라'에 신경써야지. 관객들 마음을 '확실히 지져부릴 수 있는' 감독이 되고 싶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13구역 부패한 도시 13구역에서 벌어지는 화끈한 '몸의 액션'.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예의없는 것들 신하균이 혀 짧은 소리를 내기 싫어 말없이 살아가는 전문 킬러 '킬라'로 등장하는 블랙코미디. 19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순천 롯데
원탁의 천사 뇌진탕으로 숨진 아버지가 십대의 몸을 빌어 환생했다! 하동훈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극장,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아이스케키 아빠를 찾기 위해 아이스케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소년의 이야기가 80년대의 향수를 자극한다. 전체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마이애미 바이스 1980년대 인기 드라마를 영화화 했다. 화려한 액션과 충격적인 충격신이 볼거리다.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순천 롯데
신데렐라 현수(신세경)는 성형외과 의사인 엄마(도지원)에게 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잔혹한 죽음을 맞게 되자 엄마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사랑하니까, 괜찮아 어린 연인의 시한부 사랑을 다룬 멜로 영화. 신세대 스타 지현우가 순정남 강민혁으로, 임정은이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한미현으로 출연한다. 12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 하미, 순천 롯데
겁나는 여친의 완벽한 비밀 G-Girl(great-girl)로 통하는 슈퍼 히로인 제니(우마 서먼)는 멋진 킹카와 사랑에 빠지지만 곧 결별을 통보받게 되고 복수를 결심한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각설탕 어릴때부터 유난히 말을 좋아한 시은(임수정)은 2년전 원치않게 헤어져야 했던 경주마 천둥이와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되고 함께 경마대회에 출전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순천 롯데
몬스터 하우스 사춘기에 접어든 예민한 디제이는 바로 앞집이 악령이 깃든 괴물같은 집, '몬스터 하우스'란 사실을 알게 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괴물 오염된 한강에서 돌연변이로 생긴 괴물을 상대로 가족의 사투가 펼쳐진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 엔터, 프리머스 제일, 콜롬(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주목! 이 영화

정겨운 옛추억 '가슴찡한 맛'

'아이스케키'

'안녕, 형아'에서 성인 못지 않은 연기 실력을 선보인 박지빈이 '아이스케키' 아르바이트 생으로 돌아왔다.

'아이스케키'(감독 여인광·제작사 MK픽처스)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엄마와 단둘이서 살고 있는 영래.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던 영래는 우연히 아버지가 서울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서울 가는 기차표를 사기 위해 아이스케키 장사를 시작한다.

푸른색의 아이스케키 박스, 삼륜 자동차, 낡은 기차역, 밀수 화장품 등 향수를 자극하는 배경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는 촌스럽지만 정겨운 옛추억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게 한다. 실제로 영화의 대부분을 광주·전남 지역에서 촬영했다.

'아이스케키'는 엄청난 반전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최대한 충실했다. 처음으로 영화에 도전한 신애라는 억척 엄마의 연기를 잘 소화해냈으며, 박지빈의 연기는 더욱 돋보인다. 전체 관람가.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황정민·임수정 허진호 감독 신작 '행복' 캐스팅

영화계는 지금

요즘 충무로에게 가장 각광받는 배우인 황정민(사진 왼쪽)과 임수정이 허진호 감독의 신작 '행복'(가제, 라이필름·영화사 집)에 캐스팅됐다.

'행복'은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외출'에 이은 허 감독의 네 번째 사랑 영화다. 황정민은 서울에 애인이 있지만 몸이 아파 내려온 요양원에서 새로운 사랑에 빠지는 영수 역을 맡아 도회적인 남자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

임수정은 몸은 아프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오랜 투병생활 중에 찾아온 영수와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여인 은희 역을 연기한다.

'달콤한 인생' '너는 내 운명' 등에서 물오른 연기를 보여준 황정민과 '각설탕'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등에서 열연한 임수정이 조합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